



Original Article

Relation of Self-reported Attachment Style, Trait Anger and Anger Expression in Adolescent Women

Moon, So-Hyun¹⁾ · Park, Young-Joo²⁾

1) Lecturer, Dept. of nursing,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2)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청소년기 여성의 애착유형에 따른 기질분노와 분노표현

문 소 현¹⁾ · 박 영 주²⁾

1)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강사, 2)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ported attachment style, trait anger and anger expression in adolescent women. **Method:** Five hundred and eighty adolescent women were recruited from March to May, 2006. The instruments were Spielberger's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Chon, Han, Lee, & Spilelberger, 1997), and Batholomew & Holowitz's attachment style Questionnaire (1991).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ANOVA using the pc-SPSS (version 10.0) program. **Result:** The mean score of trait anger and anger-in were higher in adolescent women with an insecure attachment style compared to women with a secure attachment style. **Conclusion:** This finding suggests that family environment factors such as attachment styles are related to trait anger and anger expression in adolescent women. There is a need to further clarify the relationship of attachment style, trait anger and anger expression in adolescent men.

Key words : Anger, Attachment, Adolescent women

서 론

전 생애 발달단계 중 청소년기는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과도기이며, 생리·신체적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 등이 그들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다른 어떤 시기보다 감정적 기복이 심하고, 불안정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한국 청소년의 경우,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에서 부딪히는 과중한 성취압력, 맹목적인 부모의 기대와 요구, 새로운 문화의 노출과 적응 등 여러 가지 사회 심리적 압박 때문에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심각한 외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Park, 2004).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일시적으로 정서적 불균형 혹은 부적응에 처하게 되고, 많은 청소년이 개인특성, 가정환경, 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심리적 갈등과 욕구불만을 경험하며, 이러한 것들이 분노감정을 유발하게 된다. 분노의 선행요인으로는 반성적인 조급성, 인내성 부족, 경쟁심, 적대감 및 능력과 통제감에 대한 강한 욕구 등의 특성을 보이는 A형 행동유형, 잠재적인 유전적 소인의 가능성, 또는 어린시절 양육자와의 애착경험과 같은 가족적 요인 등이 제안되고

투고일: 2008. 5. 16 1차심사완료일: 2008. 5. 27 2차심사완료일: 2008. 6. 2 최종심사완료일: 2008. 6. 9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Moon, So-Hyun(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252, Daeho-dong, Naju, Jeonnam 520-714, Korea
Tel: 82-62-675-5765 C.P: 82-11-9622-4509 E-mail: bonjourmsh@dsu.ac.kr

있다(Muris, Meesters, Morren, & Moorman, 2004).

특히 청소년기는 부모 자녀 모두가 상호존중과 개별성에 근거하여 서로 연결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자신을 하나의 개체로 분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아동기의 의존성을 버리는 과정을 의미한다(Greenberg, Siegel, & Leith, 1983). 이러한 분리 개별화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부모를 포함한 대인관계에서의 적절한 친밀감과 균형 및 다양한 탐색을 통해 심리사회적 적응과 안녕감을 촉진시키며 자아개념과 감정에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최근에는 이러한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과 발달을 애착과 연관지어 조사하는 연구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Kim, 2003).

애착은 자신과 특정 개체 사이에 형성되는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로서, 최근에는 평생을 통해 형성되고 지속 유지된다는 전생애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특히 생후 초기 주요 양육자와 아동의 관계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로 맺는 사회적 관계로서 이러한 관계는 이후 아동기와 청소년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성격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한다(Seo, 2005). 그리고, Bowlby(1973)는 분노를 타인의 부정적인 애착행동에 대한 적응적인 저항반응의 일환으로 보았고 불안정한 애착경험은 순기능적인 분노를 역기능적인 분노로 변형시킨다고 하였다.

애착과 분노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Mikulincer(1998)는 안정적으로 애착된 사람은 기능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경험하는 반면에, 불안정하게 애착된 사람은 역기능적으로 분노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안정적으로 애착된 사람들이 높은 개인적 효능감을 지니고 있고 타인의 선한 의지를 믿기 때문에 좀 더 조절된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고, 분노를 표현한 이후에도 부정적인 정서를 적게 경험한다고 보았다. 반면에 불안정하게 애착된 사람들은 분노 상황에서 부적응적인 반응과 조절되지 못한 적대감을 보이며 분노표현 이후에도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한다고 설명하였다. Grunbaum, Vernon과 Clasen(1997)은 아동기의 애착을 반영할 수 있는 성인 애착 유형이나 부모의 자녀양육방식과 같은 가족환경을 설명하는 개념들이 기질분노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고, Muris 등(2004)은 자신을 회피적 또는 양가적 애착유형으로 보고한 청소년은 안정애착유형을 보인 청소년에 비해 분노/적대감 수준이 높았음을 확인하고, 청소년 애착유형은 분노/적대감과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국내연구에서도 Lee(2005)는 불안정하게 애착된 유형은 안정된 애착유형보다 분노를 자주 강하게 경험하며 이를 오래 지속하며, 안정형은 불안정유형에 비해 분노를 밖으로 표현하는 정도가 낮으면서 동시에 안으로 억압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분노표현과 분노억압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문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애착과 정서경험, 조절양식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생애초기의 양육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애착이 아동기와 청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Hazen & Shaver, 1987),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과 부모와의 애착간의 관련성은 청소년기 정서적 발달측면에서 예측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Kim, 2003). 그러나, 그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수행된 애착관련 연구들은 정상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애착유형과 우울 및 불안, 문제행동 청소년과 일반청소년과 같은 특정집단에 행동문제와 애착유형이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뿐(Han, 2005; Kim, 2003), 불안정한 정서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노와 같은 정서적 특성의 발달과 애착을 연구한 경우는 드물다.

한편, 분노의 정서는 남녀간 생물학적 차이 외에도 대부분의 사회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가혹하게 평가되는 사회문화적 규범을 갖고 있고 이 때문에 여성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억제되어야 하는 정서로 학습되어 분노 표현에서도 남녀가 다르게 경험하고 표현된다는 점에서(Deffenbacher & Swaim, 1999) 성별의 차이를 고려한 접근이 이루어져 한다(Daniel, Kristofer, Hagglund, Kashani, & Robert, 1996). 또한 애착유형과 분노, 적대감, 공격간 관계연구에서도 남자는 신체, 언어공격이 여자는 분노와 적대감이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Boldizar, 1991).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가족환경을 설명하는 개념인 애착유형과 분노경험 특히 기질분노와 분노표현 양식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이를 어떻게 청소년기 여성의 분노관리 접근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 여성의 애착유형과 분노경험간의 관련성을 검증함으로써 향후 청소년기 여성의 분노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기 여성이 지각한 애착유형을 파악한다.
- 청소년기 여성이 지각한 애착유형에 따른 기질분노와 분노 표현방식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기 여성의 애착유형에 따른 기질 분노와 분노표현방식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남도 광주에 소재한 K여상에 재학중인 청소년들로 편의 표출에 의해 표집하였으며, 편의 표출된 학교의 2,3학년 여학생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622부중 불충분한 응답을 한 42명을 제외한 최종분석에 포함된 대상자는 580이었다.

3. 연구도구

1) 애착유형 척도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 여성의 애착유형 측정은 Batholomew와 Holowitz(1991)가 개발하여 Kim과 Kwon(1998)이 변안한 것을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안정형, 무시형, 두려움형, 몰입형 애착 양식 각각에 해당하는 4개의 진술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유형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7=매우 그렇다.)로 표시하게 한 다음, 4개의 진술문 중 자신과 가장 잘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진술문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서로 다른 관계형성의 특징을 기술하는 네 개 항목 중 자신과 가장 잘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한가지만 선택하도록 하여, 안정형(secure), 무시형(dismissing), 두려움형(fearful), 몰입형(preoccupied)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안정형’은 친밀한 관계형성에 대해 안정적이며, ‘무시형’은 친밀한 대인관계형성의 필요성을 평가절하하고 독립적인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을 가지고 있다. ‘몰입형’은 친밀한 대인관계형성에 대한 욕구가 높고 이에 높은 가치를 두는 유형으로 상대방의 자신에 대한 평가와 인정에 민감하며, 자기에 대해 부정적이고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으로 지니고 있다. ‘두려움형’은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을까봐 친밀한 관계형성을 회피하는 유형으로, 자기와 타인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표상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2이었다.

2) 상태-기질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K)

기질분노와 분노표현을 측정하기 위하여 Spielberg(1988)가 개발한 상태-기질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이하 STAXI)를 Lee와 Cho(1999)가 변안하고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친 한국판 상태-기질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K)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12~18세의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자가 보고형 설문지로, 전체 문항은 상태분노 10문항, 기질분노 10문항과 분노표현(anger expression)을 측정하는 분노억제(anger-in) 8문항, 분노표출(anger-out) 8문항, 그리고 분노조절(anger-control) 8문항, 총 4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기의 애착을 반영할 수 있는 애착 유형과 같은 가족환경을 설명하는 개념들이 기질분노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한 연구(Grunbaum et al., 1997)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분노 정서 상태를 의미하는 상태분노 10문항을 제외하였다.

기질분노는 평상시의 분노 빈도나 분노를 느끼는 정서 상태를 의미하며, 분노표현은 분노가 표현되는 빈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노억제 8문항은 분노감정을 참거나 억압하는 내향화된 분노를, 분노표출 8문항은 주위의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분노를 표현하는 외향화된 분노를, 그리고 분노조절은 개인의 분노표현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응답범위는 기질분노와 분노표현 문항 모두 ‘거의 전혀 아니다.’ 1점에서 ‘거의 언제나 그렇다’ 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범위는 기질분노가 10점에서 40점이며, 분노억제, 분노조절 및 분노표출 각각이 8점에서 32점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기질분노 .81, 분노조절 .81, 분노억제 .60, 그리고 분노표출 .70이었다.

4.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6년 3월부터 5월까지 전라남도 광주에 소재한 K여상 학교장의 동의를 구한 후 2, 3학년 재학 중인 청소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을 구두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담임선생님들에 의해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2, 3학년 전원에게 배부한 후, 회수된 설문지 622부 중 기입이 미흡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80부를 본 연구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한 후 SPSS-win 10.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제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등은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를 이용하였으며, 애착유형별, 기질분노 수준 및 분노표현 차이 분석은 ANOVA로 검정하였고, 사후검증은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s

(N=580)

| Variables | Category | f(%) | M(SD) | Range |
|---------------------------------|-----------------|-----------|--------------|---------|
| Grade | Second | 311(53.6) | | |
| | Third | 269(46.4) | | |
| Age | | | 17.2 (.76) | 15~19 |
| Weight | | | 52.17(6.76) | 36~75 |
| Height | | | 162.25(4.97) | 140~178 |
| Mother's job | No | 187(32.3) | | |
| | Part time | 126(20.6) | | |
| | Full time | 267(46.1) | | |
| Health status | Healthy | 267(46.1) | | |
| | Average | 204(35.1) | | |
| | Not healthy | 109(18.8) | | |
| Level of interest in own health | None | 71(12.2) | | |
| | Average | 145(25.1) | | |
| | Very interested | 364(62.7) | |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분포는 2학년이 53.6%(311명), 3학년이 46.4%(269명)였으며, 평균연령은 17.2세로 범위는 15세~19세, 평균체중은 52.17kg, 평균신장은 162.25cm(140cm~178cm)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32.3%(187명), 전일제 46.1%(267명), 부분제가 20.6%(126명)이었고, 대상자들이 생각한 건강상태는 '건강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6.1%(267명)로 가장 많았고, 건강에 대해서는 62.7%(364명)가 '관심이 많다'라고 응답하였다<Table 1>.

2. 대상자의 분노와 애착유형

대상자의 분노 경험의 평균은 구체적으로 기질분노 18.45,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the research variables (N=580)

| Variables | f(%) | M(SD) |
|----------------------|-----------|-------------|
| Trait anger | | 18.45(4.71) |
| Anger expression | | |
| Anger-control | | 17.98(4.41) |
| Anger-in | | 14.89(3.38) |
| Anger-out | | 13.74(3.41) |
| Attachment style | | |
| Security | 297(51.2) | |
| Dismissing avoidance | 48(8.3) | |
| Preoccupation | 162(27.9) | |
| Fearful avoidance | 73(12.6) | |

<Table 3> Trait anger according to the perceived attachment style of the adolescent women

(N=580)

| Variables | Security ^a | Dismissing avoidance ^b | Preoccupation ^c | Fearful avoidance ^d | F(p) | Multiple comparison | | | |
|-------------|-----------------------|-----------------------------------|----------------------------|--------------------------------|-----------|---------------------|-----|-----|-----|
| | (n=297) | (n=48) | (n=162) | (n=73) | | a-b | b-c | c-d | a-c |
| Trait anger | M(SD) 18.15(4.46) | M(SD) 17.23(4.59) | M(SD) 19.37(5.12) | M(SD) 18.51(4.60) | 3.45(.02) | | | | |

Note. + means th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n pairs

분노조절 17.98, 분노억제 14.89, 분노표출은 13.74이었고, 대상자의 애착유형은 안정형 51.2%(297명), 무시형 8.3%(48명), 몰두형 27.9%(162명), 두려움형 12.6%(73명)이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애착유형에 따른 기질분노와 분노표현

청소년기 여성의 애착유형에 따른 기질분노 수준의 차이 검증결과<Table 3>, 기질분노 정도는 안정형 18.15, 무시형 17.23, 몰입형 19.37, 두려움형 18.51로 네 유형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45, p= .02). 구체적으로 유형별 다중비교에서는 몰입형 애착유형의 기질분노 수준이 가장 높고, 무시형 애착유형의 기질분노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두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03), 몰입형과 안정형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4).

분노표현에서 분노억제 정도는 안정형이 14.29, 무시형이 13.81, 몰입형이 15.69, 두려움형이 16.14이었으며 네 유형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1.24, p<.000). 구체적으로 유형별 다중비교에서는 두려움형의 분노억제 점수가 가장 높고, 무시형이 분노억제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두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1). 그러나 분노조절에서는 안정형이 18.10, 무시형이 18.21, 몰입형이 17.63, 두려움형이 18.74로 몰입형 애착유형이 분노조절점수가 가장 낮았으나 애착유형별 분노조절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1.07, p= .36). 또한 분노표출에서도 안정형이 13.71, 무시형이 12.78, 몰입형이 13.97, 두려움형이 14.24로

<Table 4> Anger expression according to the perceived attachment style of the adolescent women (N=580)

| Variables | Security ^a | Dismissing avoidance ^b | Preoccupation ^c | Fearful avoidance ^d | F(b) | Multiple comparison | | | |
|------------------|-----------------------|-----------------------------------|----------------------------|--------------------------------|-------------|---------------------|-----|-----|-----|
| | (n=297) | (n=48) | (n=162) | (n=73) | | a-c | a-d | b-c | b-d |
| | M(SD) | M(SD) | M(SD) | M(SD) | | | | | |
| Anger expression | | | | | | | | | |
| Anger-control | 18.10(4.64) | 18.21(4.58) | 17.63(4.08) | 18.74(4.18) | 1.07(.36) | | | | |
| Anger-in | 14.29(3.29) | 13.81(2.73) | 15.69(3.38) | 16.14(3.68) | 11.24(.00) | + | + | + | + |
| Anger-out | 13.71(3.44) | 12.78(2.76) | 13.97(3.32) | 14.24(4.03) | 1.92(.13) | | | | |

Note. + means th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n pairs

무시형 애착유형이 분노표출점수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1.92, p= .13)<Table 4>.

논 의

애착의 내적 작동 모델은 분노를 경험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Bowlby, 1973), 불안정한 애착유형이 분노와 적대감같은 개인적인 성향기질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으며(Thoresen & Pattillo, 1988), 일부 연구자들은 분노와 적대감은 애착유형과 같은 가족요인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제안한 바 있다(Grunbaum et al., 1997).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개별화 과정을 겪게 되는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과 관련하여 겪게 되는 심리적 특성 중 분노와 애착유형 간의 관계를 보고자 시도되었다. 한편 Jang(1997)의 연구에서 Collins와 Read의 애착 3분류 척도와 비교한 결과, 4분류의 타당도가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애착유형과 분노, 분노표현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애착유형을 4가지로 구분한 Batholomew와 Holowitz(1991)의 척도를 이용하여, 청소년기 여성 580명을 대상으로 애착유형과 기질분노, 분노표현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 청소년기 여성이 지각한 애착유형은 안정형 51.2%(297명), 무시형 8.3%(48명), 몰입형 27.9%(162명), 두려움형 12.6%(73명)로 나타났다. 국내연구에서 Oak, Oh와 Jung(2001)은 청소년 400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Batholomew와 Horowitz(1991)의 애착 4범주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대상자의 애착분포가 안정형, 몰입형, 무시형, 두려움형순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와 동일하게 무시형보다는 몰입형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결과는 부모와 상호의존성을 강화시키는 한국문화권의 양육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Ijzendoorn & Sagi, 1999). 남녀집단별로 애착유형 분포를 확인한 Han(2005)은 청소년 404명을 대상으로 여학생의 경우 안정형과 몰입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둘째, 애착유형에 따른 기질분노와 분노표현에서는 안정형에 비해 불안정 애착중 몰입형이 기질분노가 유의하게 높고,

분노표현에서는 긍정적인 분노조절보다는 분노억제나 분노표출과 같은 부정적인 분노표현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형, 무시형에 비해, 몰입형, 두려움형이 기질분노가 더 높았으며, Kidd와 Sheffied(2005)는 대학생 191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Batholomew와 Horowitz(1991)의 애착 4범주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기질분노 정도는 4 애착유형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몰입형의 기질분노가 가장 높았으며, 안정형의 기질분노가 가장 낮아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분노표현에서는 분노억제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몰입형이 기질분노가 가장 높고, 부정적인 분노표현 방식인 분노억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즉 안정적으로 애착된 사람은 분노에 관해서 낮은 수준의 기질분노와 분노 각성을 보여, 분노를 자주 경험하지 않으며, 오래 지속하지도 않고, 강도 또한 강하지 않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Troisi와 D'Argenio(2004)는 안정성인 애착 유형과 기질분노가 관계가 있고 우울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한 관계를 보여, 불안정 애착유형이 기질분노의 예측요인일 수 있음을 보고하였고,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 애착유형 개념이 개인의 비교적 안정된 특성으로서 기질분노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Meeters와 Muris(2002)는 성인초기 여성 139명을 대상으로 성인애착유형을 측정한 결과 불안정 애착을 보인 여성이 안정애착을 보인 여성보다 분노와 적대감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Muris 등(2004)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회피적 양가적 애착유형을 보인 청소년들이 안정애착을 보이는 청소년보다 분노와 적대감이 더 높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Mak(2005)은 애착유형에 따른 분노표출 양상의 차이에 관해 안정 애착유형이 불안정 애착유형에 비해 기질분노수준이 낮았음을 보고하였고, Park 등(2006)은 대학생 650명을 대상으로 Hazen과 Shaver(1987)의 성인애착유형 척도를 이용하여 안정애착유형이 회피적이거나 양가적인 불안정 애착유형보다 기질분노가 유의하게 낮고, 분노표현에서도 분노억제나 분노표출과 같은 부정적인 분노표현 방식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Batholomew와 Horowitz(1991)의 안정형은 Hazen과 Shaver(1987)의 안정애착유형과

같으며, 몰두형은 불안/양가유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안정형에 비해 불안정 애착중 몰입형이 기질분노가 더 높았다는 결과로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Allen, Moore, Kupermic과 Bell의 연구(1998)에서는 몰입형 애착유형이 청소년 비행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서 간접적으로 애착과 분노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 본 연구결과는 애착유형과 같은 가족환경요인이 기질 분노, 분노표현 방식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한 불안정한 정서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노와 같은 정서적 특성의 발달과 애착유형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즉, 애착유형은 청소년의 발달특성상 겪게 되는 정서-분노의 경험과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으며, 내적작동모델의 지속을 통해 설명되는 인지적 요인들과 긴밀한 애착유형과 분노정도, 분노표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분노를 관리하는 인지적 접근의 요소로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상기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기의 분노 관리 및 조절을 도모하기 위한 개별화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할 때, 성 차이에 근거하여 개인의 기질 분노 및 분노표현을 파악하고, 개인의 지속적인 경향이 있는 분노경향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접근이 요구되며, 인지적 접근 요소로 애착유형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기 여성 580명을 대상으로 애착유형에 따른 기질분노, 분노표현간의 관계를 조사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결과는 불안정하게 애착된 유형은 안정된 애착유형보다 기질분노가 높으며, 안정형이 불안정 유형인 몰입형에 비해 분노를 밖으로 표현하는 정도가 낮으면서 동시에 안으로 억압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나 분노표현과 분노억압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유형과 분노경험 및 분노표현 양식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청소년기 여성의 분노 관리시 개인의 애착유형을 고려하는 인지적 접근이 요구되며, 또한 애착유형별 특성에 맞는 중재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가 K지역에 위치한 여고생을 편의 표집에 의한 표본에 근거하였다는 점에서 표본의 대표성 및 표본수의 방법론적 제한점을 보완하여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기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애착유형과 분노, 분노표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도해 볼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Allen, J. P., Moore, C., Kuperminc, G., & Bell, K. (1998). Attachment and adolescent psychosocial functioning. *Child Dev, 69*(5), 1406-1419.
- Bartholomew, K., & Horowitz, L.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 Pers Soc Psychol, 61*(2), 1107-1120.
- Boldizar, J. P. (1991). Assessing sex typing and androgyny in children: the children's sex role inventory. *Dev Psychol, 27*, 505-515.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Daniel, L. C., Kristofer, J., Hagglund, J. H., Kashani & Robert G. F. (1996). Sex differences in anger expression, depressed mood, and agg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 Clin Psychol Med Settings, 3*(1), 79-92.
- Deffenbacher, J. L., & Swaim, R. C. (1999). Anger expression in Mexican American and White Non-Hispanic adolescents. *J Couns Psychol, 46*, 61-69.
- Greenberg, M., Siegel, J., & Leith, C. (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 Youth Adolesc, 18*, 113-130.
- Grunbaum, J. A., Vernon, S. W., & Clasen, C. M. (1997). The association between anger and hostility and risk factors for coronary heart diseas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review. *Ann Behav Med, 19*, 179-189.
- Han, S. H. (2005). *The relationships of attachment,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of adolescents - Focused on the highschool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Haze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 Pers Soc Psychol, 52*(3), 511-524.
- Ijzendoorn, M. H., & Sagi, A. (1999). *Cross-cultural patterns of attachment*, In J. Cassidy & P. 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Jang, H. S. (1997). Comparison to 3 category and 4 category model of adult attachment. *J Korean Dev Psychol, 10*(2), 123-138.
- Kidd, T., & Sheffield, D. (2005). Attachment style and symptom reporting: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s of anger and social support. *Br J Health Psychol, 10*, 531-541.
- Kim, E. J., & Kwon, J. H. (1998). Interpersonal characteristics rel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focused on adult attachment. *J Korean Clin Psychol, 17*(1), 139-153.
- Kim, M. D. (2003). *Relationships between attachment style, self-concept, depression, and anxiety: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high school adolescents and juvenile delinqu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Lee, S. J. (2005). *Anger Regulation style and the experience of the anger according to adult attachment style*.

-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
- Lee, Y. S., & Cho, J. Y. (1999). A standardiz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adolescent's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38(4), 794-804.
- Mak, N. E. (2005). *Dysfunctional attitude and aspect of anger expression according to attachment typ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chunhyung University, Asan.
- Meesters, C., & Muris, P. (2002). Attachment style and self-reported aggression. *Psychol Res*, 90(1), 231-235.
- Mikulincer, M. (1998). Adult attachment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functional versus dysfunctional experiences of anger. *J Pers Soc Psychol*, 74(2), 513-524.
- Muris P., Meesters, C., Morren, M., & Moorman, L. (2004). Anger and hostility in adolescent: Relationships with self-reported attachment style and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s. *J Psychosom Res*, 57, 257-264.
- Oak, J., Oh, Y. H., & Jung, H. O. (2001). Adolescent attachment and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 comparison among incarcerated delinquent group. *J Korean Clin Psychol*, 20(2), 259-270.
- Park, S. J. (2004). *The effects of Daily stress, self control, social relationship and parent's attitude on the addictive use of interne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Park, Y. J., Park, E. S., Chang S. O., Choi, M. S., Song, J. A., & Moon, S. H. (2006). The relation of self-reported adult attachment style,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 and anger in undergraduate students. *J Korean Acad Funda Nurs*, 13(2), 304-311.
- Spielberger. (1988). *Professional manual for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STAXI)*. Tamp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Seo, J. W. (2005). *The relationship among mother-child attachment, ego-resiliency and peer violence experience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chunhyang University, Asan.
- Thoresen, C. E., & Pattillo, J. R. (1988). *Exploring the type A behavior patter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Houston BK, Snyder CR, editors. Type A behavior pattern: research, theory, and intervention. New York: Wiley. 98-145.
- Troisi, A., & D'Argenio, A.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and depression in a clinical sample of young men: The role of insecure attachment. *J Affect Disord*, 79, 269-272.